

거창 고택리 해주오씨(海州吳氏)의 장소애착(場所愛着)과 종족경관(宗族景觀)의 형성과정

이현우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장소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미 부여된 지표공간의 일부로 그 속에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상징경관이 함축되어 있다(전중환, 2005: 133). 장소는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융합된 곳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깊은 중심으로(문재원, 2010: 21),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의 축적된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경관지리학을 정립한 Schütter가 피력한 “한 지역의 가시적 경관은 자연적 조건과 인간활동의 결과”라는 견해는 지금도 역사지리학적 경관연구의 기본 흐름으로 사회적 경관의 형성과정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 장소에 대해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을 유발하는 ‘인간과 장소의 총체’가 바로 장소성(이석환과 황기원, 1997: 169)이라 할 때,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은 ‘기억과 재현의 장소’ 창출은 현대조경의 화두가 될 만하다. 현대사회의 기념비적 공간이나 경관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경관으로, 물개성화된 획일적 무장소성을 조장한다는 Relph(2005)의 견해는 매우 시사적이며, 지리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경관창출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이현우, 2012). Heidegger(1927) 또한 “거주는 곧 장소에 뿌리내린 삶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신과 일체화된 환경을 구축 영위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자연으로의 외부성과 자아에게 되돌아오는 내부성이 합일한 대표적 공간 또는 장소가 누정(樓亭)으로 정의(이현우, 2011; 노재현 등, 2012)됨을 볼 때, 선현들의 강학과 풍류의 토대였던 전통 누정이야말로 외부인에게는 장소착근(場所着根)의 현장이자, 내부자에게는 장소애착(場所愛着)을 촉진하는 기념비적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추론을 입증할 장소로 선정한 곳이 바로 거창 고택리 해주오씨의 용원정원림을 포함한 병향마을과 고신마을이다. 본 연구는 용원정원림 및 마을 주변의 지명과 조형물 등 이곳에 산재한 문화경관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토대로 고택리의 장소 특질을 확인하는 한편, 용원정원림과 마을 내 배태된 장소애착의 방식과 종족경관(宗族景觀)의 형성과정을 추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해주오씨지군사공파(海州吳氏知郡事公派) 중 구화공휘수파(九華公諱守派)의 집성촌인 경남 거창군 마리면 고택리의 내력과 용원정 일대 약 0.5km 권역권의 주요 경물과 지명에 대한 연원 및 해주오씨 입향조 구화공(九華公)을 비롯한 후손들의 활동과 행적 그리고 공간 의미이다. 핵심 연구대상은 용원정과 배후 마을인 병향·고신마을이다. 연구의 진행방식은 구화공과 그 후손들이 마을에 터전을 마련하며 이룬 역사적 기념물과 행적 등 다양한 기념비적 문화행위의 흔적을 편년체식으로 추적하고, 그 장소 유형과 성격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 내용

연구의 내용은 첫째, 용원정기·유적비·시문·기문 등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해주오씨 입향조 구화공과 관련된 장소 확인, 둘째 원림 주변의 공간 및 시설물 등 추모의 흔적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장소성 추적, 셋째 용원정원림과 동족마을인 병향·고신마을에 행해진 송모 및 추념의 시설과 공간 그리고 주변에 각자된 바위글씨 등의 탐색을 통한 조상 송모의 기념비적 시설 또는 공간형태 추적, 넷째 마을 내 기념비적 조형과정의 본질을 ‘해주오씨’ 종족경관의 형성과정으로 인식하고, 그 단계와 함의 추찰 등이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1) 분석 및 해석의 기본시각

본 연구에서는 종족경관 형성과정의 중요 동인으로 장소착근과 장소애착의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논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소애착은 장소에 대한 종족집단이 지닌 감정의 질을 결정하며, 지리적 배경을 포함한 사회·역사·문화적 현상의 수

럼으로 나타난다.

둘째, 장소애착의 일면에는 문화적으로 가치화된 경험을 환기시키고, 그 의미를 통해 연계된 집단과 장소 사이의 상징적 관계가 포함된다.

셋째, 종족집단과 그들이 이룬 경관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감정의 결속 결과가 장소애착이라면, 장소착근은 경관의 재현과 정착과정을 통해 획득된 자연 발생적 뿌리의식의 결과이다.

2) 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및 후손과의 인터뷰 등으로 구분된다. 문헌연구는 향토지 및 관련 논문 분석을 통해 '용원(龍原)'의 의미와 기본정신 그리고 용원정 건립의 시대정신과 연원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 주체인 해주오씨 종족 집단의 14세기 이후 행적을 투영하는 중요한 창문이 바로 그들의 족보라 판단하였다. 해주오씨의 족보는 고려시대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본 고에서는 해주오씨 지군사공파보(海州吳氏知郡事公派譜) 권지상(卷之上) 구화공 휘수파(九華公諱守派) 족보를 조사 분석하였다. 현장조사는 비참여관찰법(non-participant observation)에 의해 실행되었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그리고 주민 인터뷰 등을 병행한 해석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특히 용원정과 병향마을 일대 조영물과 바위글씨 내용을 기록하고, 족보 및 인터뷰를 통해 조영 및 바위글씨를 새긴 시기를 추론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고향리 병향마을에 거주하는 오수공의 13대손인 오준식옹(83세)으로, 마을의 내력과 관련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한편, 연구대상 주변의 지명과 경물에 대한 유래 및 공간 특성은 고지도 및 1:25,000 지형도, 향토자료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인용한 문헌자료는 용원정기를 비롯하여 용원정상량문 등 기문과 시문이 포함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지명을 통해본 장소

1) 고향리 병향마을과 해주오씨

고향리 병향마을은 약 400년 전 해주오씨들이 터를 잡아 마을이 열리게 되었다. 마을 동쪽 당봉의 자라바위와 서쪽 송덤 당봉의 뱀바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중간 지점의 목넘 고개터에 있다 하여 자라목이라 명명하여 왔는데, 일제강점기 때 병향마을로 바뀌었다. 음양 가운데 양인 남성적인 산으로 보아 흰 것을 상징한 학(鶴)을 불러 산 아래 마을 이름으로 고향(阜鶴)을 취했고, 산은 백(白)자를 써 기백(箕白)이다. 반면에 같은 줄기 위에 솟은 금원산은 음(陰)인 여성적인 산으로 보아 '검다'는 것을 비유한 원숭이를 산명으로 취해 금원(金猿)이다. 따라서 옛 안

의삼동 중 하나인 원학동(猿鶴洞)은 금원산의 원(猿)자와 기백산의 백(白)자를 상징한 학(鶴)자로 이루어진 지명이다. 기백산 안봉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고향천(阜鶴川)의 용폭을 이루고 쌀다리와 용원정 명소를 간직하고 있다. 지명 고향리(阜鶴里)의 고향이란 이름은 마을 앞 학봉(鶴峰: 350)이라는 산봉우리에서 연유된 것이다(마리면지편찬위원회, 1993). 또 다른 설로는 마을 뒤편 기백산 준령의 능선이 크고 재가 중첩되어 두텁다는 뜻의 고고(高阜)에서 고자를 따고 마을의 형상이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박종섭, 2008). 상기 공통점은 '학'을 중심으로 하는 거처로서의 의미가 충만하며, 이는 용원정원림 내 최초 입향자인 구화공 오수의 유허지가 '방학대(訪鶴臺)'라고 각자되어 있음에서도 잘 나타난다.

2. 용원정원림의 장소 형성

1) 정명에 담긴 장소의 뿌리내림

용원정은 해주인 구화공 오수(吳守) 선생을 기려 후손들이 1964년 세운 누정공간이다(박기용, 1998). 용원정의 정명(亭名)은 기백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용폭(龍瀑)에서 얻어진 이름으로 이는 조상의 근원을 찾겠다는 의미로(하중환, 2005) 중의법적 표현이다. 용원정은 '용폭의 근원을 생각하는 정자'이며, 이는 해주인 구화공 오수가 일찍이 이 마을에 터를 잡은 이래 후손들이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정명이다. 용원정은 다락처럼 높이 지은 누각형태 팔각지붕 건물이며,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에 방이 없는 개방식 정자 형태로 영남 정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용원정원림에서 산촌마을의 경사진 길을 1.5km 쫓 으르면 숲 그늘 아래 조그마한 소(沼)가 있는데, 원래 깊었던 소이나 지금은 메워져 옛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 용폭은 기백산 줄기가 꿈틀거리고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 용과 같다는 뜻에서 명명되었다.

2) 쌀다리 등 승모의 기념물

기백산에서 흘러내리는 용계(龍溪)를 끼고 있는 용원정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커다란 돌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를 '쌀다리'라고 부른다. 구화공의 후손인 성재·성화 형제가 1758년에 쌀천섬을 들어 놓았다는 데서 쌀다리라고 이름 지었다. 오형제가 백미 천석을 내놓고 큰 돌을 구해 수백 명의 일꾼이 3일간 운반하여 다리를 놓았다고 전해져(박종섭, 2008), 그 유래가 다리 명칭이 된 것이다. 한 개의 중심다리 받침돌 위에 두 개의 큰 돌을 연결하여 마치 거문고처럼 누운 평교 돌다리이다.

3) 용원정원림의 장소애착

용원정 왼쪽으로는 정려각이 있고, 그 내부에는 '효자해주오공유모지려(孝子海州吳公有模之閭)'라고 기록된 효열각비가 존

표 1. 해주오씨 증족경관의 경관적 표상

유형		내용	행위 주체	시기	장소	
유형 요소	墓	嘉義大夫九華海州吳公諱守之墓			병항마을	
	亭子	龍源亭	지군사공파 후손	1964년	용원정	
	齋室	九華齋(九華 吳守의 講學處)	지군사공파 후손	1922년	고신마을	
		鶴山齋(農菴 吳聖哉의 講學處)	농암공파 후손	1965년	고신마을	
		東林齋(吳光廷·吳善敏·吳孟瞳) 동립재 이진비	전서공파 후손	1879년 이전(임하댐 건설)		
	設橋	쌀다리 조성	吳聖載(21: 肅宗 壬午)·吳聖化(21 戊子)	1758년 건립 1917년 일부 유실 1964년 재건	용원정	
	設橋事蹟碑	쌀다리조성 노력을 치하	안의 현감 이성중 오시영	1965년		
	碑文	遺墟碑 (臺) 조성	訪鶴臺, 吳九華遺墟洞			병항마을 고신마을
			停鶴臺, 吳世元棲息地(27: 丁亥)	吳錫奉(28, 1960)		
			詠歸臺 吳錫珉(29庚子)棲息之所(1900-?)			
		遺蹟碑	嘉善大夫兵曹參判九華吳公遺蹟碑	錫學, 錫奉, 甲澤, 鍾澤(12) 권창현(謹撰)·신원성(謹書)·오환숙(譯述)	1965	용원정
			翁章處士吳公諱世元遺蹟碑(27)	손자 吳信一, 吳承旭, 吳宗珉(29) 등	2001년	
		施惠不忘碑 (선덕비·공덕비)	吳世安(27)施惠不忘碑	마리면민	1910년	
			吳錫奎(28)施惠不忘碑		1911년	
	吳世元(27: 1942)施惠不忘碑		1974년(隆熙4年: 1910)			
	旌閭閣 (효열각내 비)	孝烈婦孺人淸州韓氏之間		1863년		
		孝子海州吳公有模之間(25)		1973년(丁丑年)		
	巖刻書	詠歸臺	吳錫民 遊詠處	고신마을 앞		
		永慕洞(왕바위)	안의현 李富者	바래기재 윈터골		
		訪鶴臺, 吳九華遺墟洞				
阜鶴乙丑年生一同		吳錫亨(28, 乙丑) 吳龍澤(29, 壬寅, 1939) 李圭運 吳永澤(29, 辛亥1961) 李鍾周 朴相根 章春澤 吳重澤(29, 乙丑) 李鐘吉 金守萬	을축년 1925년 1985년			
吳甲澤(29, 甲辰)						
吳世大(26)		錫鉉(高宗 丙戌) 錫學 錫珉(28)				
吳鳳煥(26, 己酉)		子 世巖 世石				
吳世羽(27, 辛未)						
吳世栢(27, 己丑) 李圭煥 李圭漢						
吳世安(27, 丁卯)		子 錫文 錫奎(28, 己丑) 錫周 錫東				
吳世永(27, 己丑)		子 石潤 石基				
吳錫明(28)			1973년			
기타 徐判九 徐判男, 李圭煥 主瑛						
芳銘記	吳安植외 49명		1985년	마을진입로		
亭子木		수령 약 400년(보호목)		학산재 뒤편		
무형 요소	詩文	용원정시	11世孫 錫普(28) 謹稿 12대손인 吳澤龍(29) 12世孫 文澤(29)	1922년 1930년 1954년		
		謹次龍源亭韻	十代孫 世元(27) 謹稿			
		龍源亭記	11세손 錫佑(28)			
		龍源亭記	화산 권용현	1964년		
		龍源亭上樑文	하동 정도현(鄭道鉉)	1965년		
		追次龍源亭韻	안동 권창현			
	訪鶴臺讚	12세손 중택(鍾澤)				
	傳說	용원정 거북바위 건설				
	地名由來	용폭(沼)-龍瀑臺			상촌마을	
		투구바위			용원정	
자라바위와 뱀바위		당봉 아래-병항마을 송딴 당봉				
거북바위(龜巖臺)		慶州 李氏 詠慕洞		상촌마을		
베를바위				고대마을		

치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는 1965년 안동 권창현이 지은 구화공 유적비와 1965년 오시영이 지은 오씨형제를 기린 설교사적비, 구화오공유적비가 있다. 그리고 용원정 아래 용계(龍溪)에는 거석(巨石)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곳에는 '고학을축년생일동(阜鶴乙丑年生一同)'을 비롯하여 총 11개의 바위에 해주오씨 인명각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으며, 주변은 느티나무·왕벚나무·버즘나무 등이 우점하는 방학림(訪鶴林)으로 불리운다. 용원정 내부에는 1964년 화산 권용현의 「용원정기」, 1965년 하동 정도현의 「용원정 상량문」, 11세손 석보 및 12세손 문택·덕택 형제의 「용원정시」, 안동 권창현의 「용원정 운을 따라서」 등 다수의 누정편액이 계판되어 있는데, 이는 정자의 근원을 생각하는 한편 조상과 선현에 대한 숭모의 정을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3. 병항·고신마을의 장소애착

1) 재실 건립에 담긴 장소애착

고신마을의 구화재(九華齋)는 구화공의 강학처로 중시조인 공을 추모해 1922년에 후손들이 건립한 재실이다. 또한 학산재(鶴山齋)는 농암 오성재의 강학처로 고신마을로 확산된 숭조(崇祖)를 통한 영역성의 확산으로 후손들이 건립하고 그의 호를 딴 이름의 재실이다.

2) 바위각자로 새긴 장소애착

방학대(訪鶴臺)는 고학천변의 용원정 쌀다리 앞에 놓인 커다란 자연 바위로, 오구화유허비를 상징하는 암각서 및 12대손 종택이 쓴 「방학대찬(訪鶴臺讚)」에서도 이곳이 구화공의 장구지소(杖履之所)였음이 감지된다. 주위의 맑은 물과 수목이 울창해 학이 깃들었다 하여 이름 붙인 대(臺)의 명칭이 이곳의 장소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식이다. 병항마을 우측의 정학대(停鶴

臺)는 이곳에 '학이 서식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념비적 유허지이다. 오세원(27세손)의 서식지(棲息地: habitat)로 각자되었음에서도 알 수 있듯 '학이 등지를 틀었다'는 생물학적 서식지의 개념이 농후하다. 바위 각자된 시문 오공유영대(吳公遊詠臺)라는 표현에서 오세원이 유영(遊詠)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신마을 입구에 암각된 영귀대(詠歸臺)는 오석민유영처(吳錫民遊詠處)로서의 조상 숭모와 장소애착이 깃든 기념비적 조형물이며, 그 옆 최근에 세운 영모비는 기념비적 경관의 재생산을 통한 장소재현의 흔적이다.

4. 해주오씨 종족경관의 형성

용원정원림을 중심으로 병항·고신마을에 형성된 장소착근 흔적들의 형성과정과 의의를 '기-승-전-결'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해주오씨 구화공이 1470년 병항마을에 입향하면서 1660년 고신마을로 확장되는 등 종족마을의 형성이 시작되는데, 이 단계를 서식지 정착단계로 보고자한다. 두 번째 단계로 주변 지명이 생성되고 용계의 쌀다리 가설과 방학대 오구화유허동 각자, 시혜불망비가 조성되는 18~19세기 사이로 이는 종족집단의 장소성 구현을 통한 경관형성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후 20세기 전반은 각종 재실이 건립되고 다수의 비석과 암각 조형을 통해 종족의 이름이 용계 주변인 현 용원정원림 부지를 중심으로 각인되며, 원림조성의 기틀이 되는 방학림이 조성되는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물리적으로 물리적 정착이 생태적 정착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다양한 방식의 장소애착을 통해 용계 일대와 마을 곳곳에 장소착근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설정해 볼 수 있다. 한편 20세기 후반 이후는 용원정이 건립되면서 조상 숭모의 행위는 보다 공공성을 띄게 된다. 더불어 유허비와 유적비, 정려각과 영모비 등이 이미 형성된 장소 주변에 재현

표 2. 고학리 종족경관의 장소 및 경관형성 단계

구분	해주오씨의 활동	단계 구분(의미)		시기
		장소 형성단계	경관 형성단계	
起	▶ 해주오씨입향(1470년 병항·1660년 고신마을) ▶ 구화공 묘(九華海州吳公諱守之墓) 조성 ▶ 鶴과 관련된 지명의 생성	▶ 해주오씨의 入鄕	▶ 서식지 정착단계	17C
承	▶ 용폭·투구바위·자라·뱀바위 등 지명 유래 ▶ 쌀다리 가설(1758년) ▶ 訪鶴臺 吳九華 遺墟洞 각자	▶ 해주오씨의 마을 정착과 구화공의 기억 재생 ▶ 지명을 통한 기억과 상징 그리고 숭모	▶ 장소성 구현을 통한 물리적 정착단계	18~19C
轉	▶ 九華齋와 鶴山齋 건립(1922년) ▶ 停鶴臺와 詠歸臺 ▶ 施惠不忘碑(선덕비·공적비) 조성 ▶ 阜鶴乙丑年生一同 名 刻字(1925년) ▶ 다수의 巖刻書 조성(용원정 인근)	▶ 숭조(崇祖)와 장소의 뿌리내리기 ▶ 조상과 나의 연결고리 찾기	▶ 장소애착을 통한 경관 착근의 단계	20C 전반
結	▶ 訪鶴林 조성 ▶ 龍源亭 조성(1964년) 및 樓亭題詠詩 ▶ 遺墟碑·遺蹟碑·施閭閣 조성 ▶ 永慕碑 조성, 龜巖臺 조성	▶ 기억과 추념의 공공적 재생 ▶ 인근 마을로 번진 장소 모방	▶ 장소재현을 통한 경관 재생산 영역성 확산단계	20C 후반

되거나 추모비 건립이 성행하며, 주변 마을 등으로 장소 및 경관 모방을 통한 영역성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단계를 장소재현을 통한 종족경관의 재생산단계로 규정 짓고자 한다.

IV. 결론 및 제언

경남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는 해주인 구화공 오수가 마을에 자리 잡은 이래 후손들이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듬어 온 공간으로 1964년 용원정이 건립되었다. 이곳은 오구화선생의 유허지로 이후 후손들의 생활과 풍류의 거점이자 숭모의 정을 교감하는 원형적 장소로 지속·관리되어 왔음이 기문과 문헌자료 및 주변에 배치된 다양한 시설과 바위에 새긴 다수의 각자를 통해 충분히 감지된다. 안의삼동 중 하나인 원학동 지맥인 학봉을 상징하는 고학리와 이곳에 각인된 '방학·정학'의 의미는 해주 오씨의 생태적 정착과 서식을 설명하는 경관언어이다. 장소성이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담론과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고안물'이다"라는 정의를 상기할 때, 주변 지명과 용원정원림 그리고 마을에 산재한 다수의 조영물은 한국적 장소성의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종족집단의 기념비적 장소 전승의 사례이다.

구화공 오수가 고학리에 정착한 이래 해주오씨는 서식지 정착단계를 거쳐 장소성 구현을 통한 경관형성단계를 이루었다. 이후 조상 숭모와 장소착근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영역성은 확산되고 장소의 재생산이 이루어졌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재실 건립과 유허비의 조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해방 이후에도 용원정 건립 등의 장소재현의 단계를 거쳐 현재도 여러 형태의 기념비적 종족경관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애착과 장소착근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각하는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의 종족경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종족집단의 장소애착과 장소착근 현상이 되풀이되어 형성된 영역성 확산의 산물이야말로 종족경관의 실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는 집단 기억 속에 재차 구축·전승되고 있는 고유한 장소에 대한 후손들의 진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장소애착의 정신을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장소애착과 장소착근의 현상이 '종족의 문화경관' 또는 '조경적 힘'이라는 문화현상으로 집적되고 구현된 장소현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더불어 본 연구가 조경설계적 측면에서 집단의 기념공간 및 추모공원의 원형적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계기이자 현대적 장소재현을 위한 교훈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노재현, 이현우(2012) 거창 모현정과 수포대의 장소착근 방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3): 87-96.
2. 문재원(2010)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서울: 해안. pp. 21-26.
3. 박기용(1998) 거창의 누정. 거창문화원. pp. 632-643.
4. 박종섭(2008)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거창문화원. 대구: 문창사. pp. 33-46.
5. 이석환, 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91: 169-184.
6. 이현우(2012) 기억과 재현의 시선으로 본 장소애착과 장소착근: 해주 오씨 용원정원림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12년 추계학술논문발표집. pp. 49-52.
7. 이현우(2011) 16~18세기 누정 문화경관의 의미론적 해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전종현(2005)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서울: 논형. pp. 21-23.
9. 하종한(2005) 거창의 문화유산 2. 거창문화원. 서울: 기문당. pp. 387-396.
10. Edward Relph 저, 김덕현, 김현주 역(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pp. 12-13.
11. Feimer & E. Galler(Eds.) Environmental Psychology: Directions and Perspectives. New York: Praeger.
12. Heidegger Martin 저, 진양범 역(2008)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13. Mcandrew, F. T.(1998) The measurement of 'rootedness' and the prediction of attachment to home-tow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 409-417.
14. Shumaker, S. A. and R. B. Taylor(1983) Toward a clarification of people-place relationships: a model of attachment to a place. In N. Tuan, Y. F.(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5. <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
16. 馬利面誌編纂委員會(1993) 馬利面誌. 서울: 문정사. pp. 299-363.
17. 吳基華編(2001) 海州吳氏知郡事公派世譜.
18. 海州吳氏知郡事公派譜. 卷之上. 九華公譜守派.